

< 작은 어둠들을 비추는 작은 빛들이 모여 >

밤이 이슬해지면 칠혹의 어둠이 초병(哨兵)을 감싼다. 월광 23%. 남아있는 달 빛마저 얇은 구름에 흩어져버리는 밤이 도래하면 자그마한 유혹 하나가 슬그머니 초병을 찾아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줄음. 이 불가항력적인 생리현상 앞에서 어둠은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의 태만을 가릴 무기만 같다. 사실, 눈을 뜨든 감든 달라지는 건 없다. 그저 제때 문제없이 교대하고 가끔 오는 순찰자만 교묘히 속이면 될 일이다. 어둠은 그렇게 초병을 홀로 방치한다. 어둠에 둘러싸인 그 세상에선 모든 문제는 자신과의 싸움이 된다.

초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나는 새벽녘 초소까지 올라가는 길에 낮에 읽었던 수기들을 곱씹어보았다. 어찌 보면 쉬운 일들이었다. 삼중망을 사용하지 않는 일, 회사의 내부 정보를 오랜 친구에게 유출하지 않는 일, 법적으로 도움을 드린 할머니의 ‘작은 성의’를 거절하는 일. 이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도, 상당한 수준의 노동을 투입해야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 개인의 선택에 달린 일들이다. 그렇기에 후일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쉬운’ 모든 일들은 실은 모두 결코 ‘쉽지 않다.’ 어떤 담당관이 고맙다며 아이스크림을 들고 찾아온 보호관찰대상자를 부담 없이 물리치겠으며, 어떤 장교가 상관의 면전에서 두려움 없이 그의 잘못을 고발하겠는가.

무엇이 문제인 걸까? 이 역설의 시작은 어디이고, 그 끝은 어디인가?

* * *

빛으로만 가득한 세상은 없다. 환한 낮에도 그림자란 어둠이 있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법과 제도가 비추는 공간이 있는 반면, 그것들의 성긴 틈 사이사이로 각 개인들이 누비는 자그마한 어둠들이 숨어있다. 그곳은 정(情)이나 인연 같은 인간성(人間性)을 피우는 양분을 머금고 있기도 하지만, 초병이 마주한 어둠처럼 모든 문제를 자신과의 싸움으로 환원시키는 시험장이기도 하다. 창동역 앞 작은 포장마차, 어머니의 작은 골목, 살충제가 든 분무기를 메고

홀로 살피야 했던 좁은 주택가의 하수구. 모든 사연들은 법과 제도가 메울 수 없는 이 작은 어둠들 속에서 시작되었다. 누구도 볼 수 없는, 오직 나만이 나만의 법과 잣대로 모든 일을 재단하는 그 내밀한 어둠들에는 언제나 자신과의 타협이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청렴과 부패의 모든 차이는 여기서 비롯된다. 나의 어둠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느냐 마느냐. 수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이 단순한 기로에서 성사될 리 없는 그 악수를 정중히 거절했다.

사실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다.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을 지조를 지키는 일, 희미하게 고통치는 양심을 따르는 일. 어둠 속에서의 줄음과의 사투만큼이나 그것은 격렬하고도 절박한 개인의 투쟁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이 치열한 투쟁을 승리로 이끈 것인가? 어떤 미지의 힘이 교묘한 그 합리화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을 인도했으며, 거기에는 혹시 특별한 노하우라도 있는 것일까?

* * *

왕도(王道)는 없다. 수기의 주인공들은 어떤 특별한 방법론이 있어 청렴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꿈꾸는가, 혹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즉 자신의 삶에 대한 절박함이 한 사람을 청렴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수기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상(理想)을 품고 있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바람직하다, 모두 나름의 포부를 안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작은 어둠들을 밝히고 있었다. 불의한 일에는 예외가 없다는 군수장교의 굳은 기개, 사소한 촌지조차도 ‘다음’의 선례가 된다는 보호관찰관의 든든한 고집, 정정당당한 유세만이 결국엔 승리한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아들의 의연함. 이들 모두에게는 각자가 꿈꾸는 세상이 있었고, 그 세상을 위해서 이들은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다. 청렴은 그들에게 하나의 선택지였다기보다는 불가피한 의무와도 같았다. 그들을 이끈 건 세상에 대한 ‘욕심’ 이었고, 취사장의 부식을 교묘히 반출해가는 간부, 아이스크림이나 치킨을 거리낌 없이 받아먹는 공무원, 뒤에서 몰래 뇌물을 돌리는 선거 문화는 그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시정되어야만 할 일들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렴은 오직 실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청렴한 사회를 바라던 이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이가 암에 걸려 생활비가 빠듯해진 상황이라면 실업 급여를 편법적으로 타려는 유혹에 시달릴 수 있으며, 매일같이 자신의 상관으로부터 부당한 시달림을 받는다면 그의 뇌물 요구에 그냥 응할까 흔들릴 수도 있다. 또, 모든 등산객들에게 신도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그 등산객이 어머니와 형수님일 때 차마 원칙을 강요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기기도 한다. 마음처럼 몸이 따르지 않을 때, 사회가 깨끗해지길 바라면서 도리어 자기 자신만은 예외로 두려는 그 비겁함을 발견할 때, 그 딜레마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방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이 더러워져야 한다. 깨끗한 거리를 위해 환경미화원들은 밤낮을 악취와 땀에 절곤 한다. 그렇다면 청렴, 다시 말해 깨끗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떨까?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솔한 사람들의 피와 땀의 결실이듯, 청렴한 사회도 시민들의 희생이 누적되며 완성돼간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깊이 인정하는 것이 실천의 시작이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 한 사람은 하마터면 13년지기 친구와 다시는 못 볼 사이가 될 뻔 했고, 청렴한 사회를 위해 또 한 사람은 상관모욕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직속상관에게 직언을 날렸다. 청렴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는 자주 불편해져야하고, 귀찮아져야 하며, 때로는 냉혈한처럼 굴어야 한다. 이러한 ‘더러움’ 없이는 청렴이란 ‘깨끗함’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하여 현재 자신의 조건적인 불리함이 청렴하지 않아도 될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수용하는 것, 이와 같은 마음가짐이 청렴한 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 나는 생각한다.

* * *

즐지 않기 위해 초병은 구차해져야만 간다. 허벅지를 꼬집고, 온몸을 비비 꼬고, 자신의 뺨을 세계 후려친다. 어둠을 비춘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본디 번거롭고 구질구질하며 힘겨울 수밖에 없다. 밤하늘의 좁은 귀퉁이를 비추는 차가운 별조차도 태양만큼이나 격렬하게 핵융합중이다. 간신히 뜬, 충혈된 초병의 두 눈

이 밝히는 건 그 자신을 둘러싼 작은 어둠뿐일지 모른다. 그렇지만 작은 별들이 모여 하나의 큰 은하수를 이루듯, 우리가 각자의 작은 어둠들 속에서 그 은밀한 유혹들을 뿌리쳐나가며 작게나마 주위를 비춘다면, 청렴 사회라는 광명은 분명 그리 먼 일이 아닐 것이다.